Ohlson(1980)에 의하면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의 표본수를 동수로 하는 쌍대표본을 구성 하는 경우에는 부실과 정상기업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모형자체의 예측력도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지만， 부실화되는 기업의 수가 정상기업의 수보다 훨씬 적은 현실과 동떨어진 표본을 구성하게 되어 표본의 실제 예측력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 모두를 대응표본으로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규모변수를 통제하였으나 규모변수는 잠재적인 부실예 측변수로 이를 별도의 특성변수로 고려하였다. 부실기업의 경우 부실발생 전 4개 사업연도 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부실1년 전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는 부샬 2년 전을 1년 전으 로 하였다.

무조건 표본수를 균형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비율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때, 두 집단 간 특정 재무비율의 평균치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할 수 있는 t검정을 수행함.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보기위해 로짓회귀분석모형 중 단계별 모형을 사용함.

* 부실예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재무지표가 이론적으로 확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t검정을 활용하여 선별한 지표 중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측률을 높일 수 있는 재무지표를 도출한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로짓을 이용하는 경우, 앞서 시행한 t-test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지표도 유효한 설명변수로 될 가능성이 높음.

로짓분석으로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카이제곱 검정을 가지고 유의성을 검정했고 0.05로 설정하여서 재무비율을 추출했다로 해석함.

논문 계획서를 발표할 때, 몇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딥러닝은 잘 사용하지 않음.

분석 알고리즘 중 머신러닝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일부 넣는 것이 필요하다.